

감응과 척도 그리고 그 현대적 의미*

김희정**

- I. 서론
- II. 감응(感應)과 율려(律呂): 고대 중국의 음악적 세계질서
- III. 성리학과 그 너머: 조선 후기의 감응과 척도
 - 1. 홍대용과 최한기의 기학(氣學)
 - 2. 김일부의 정역(正易)사상과 율려
- IV. 현대 세계에서 감응과 척도의 의미: 종교, 법, 과학의 사이에서
- V. 결론

이 논문은 동아시아 전통에서 형성된 감응과 척도 개념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응은 고대 중국 우주론의 핵심 개념이고, 율려는 그 안에서 감응의 질서를 조율하는 음악적이고 우주적인 척도이다. 고대 중국은 이 율려를 통해 도량형을 통일하고, 율을 법의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사회 제도의 우주론적 토대를 강화했다. 송대 성리학이 성립한 이후 영원의 척도이자 자연의 이법인 이(理)는 조선시대에도 유가의 핵심적인 가치로 지속했다. 조선 후기에 이 질서에 균열이 생기면서 감응과 척도에 대한 관념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학자인 홍대용과 최한기는 기화(氣化)적인 우주를 유지했지만, 신비한 감응에 대한 관념을 제거해 나갔고, 기를 경험하고 예측할 수 있는 양적인 척도 관념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의 유기체적 우주론과 서구의 과학적인 사유를 포괄적으로 결합시키려 했다. 또한 김일부의 정역(正易) 사상도 기의 감응 안에서 인간과 종교에 새로운 척도를 부여해 전면적인 변혁을 꿈꾸었다. 세속화된 현대 세계에서 이러한 동아시아의 감응과 척도의 관계사를 이해함으로써 종교와 법 그리고 과학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재구성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주제어 : 감응, 척도, 율려, 성리학, 기학, 정역, 현대적 의미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5-A00049).”

** 서강대 강사

1. 서론

중국 고대 우주론의 핵심 개념이 감응(感應)이다.¹⁾ 감응은 기일원론(氣一元論)을 전제로 해서 다양한 만물이 서로 어울려 반응하고 변화(氣化)하는, 비실체적이고 관계적인 세계관을 상징하는 뿌리개념이다. 그런데 감응하는 변화의 패턴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감응 개념 자체만으로는 이해가 어렵다. 감응이 우주(cosmos)의 질서인 한 그것을 좀 더 분명히 인식하게 해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것이 척도(measure)이다. 세계의 변화가 무차별적인 혼돈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를 이루고 있음을 척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척도는 감응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 지침이 되는 개념이지만 동시에 그 세계를 제도화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경직시키기도 하는 양날의 칼이다. 즉, 그것은 자연과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감응을 쉽게 이해하는 길을 제공하되, 그러한 역동적 감응을 형해화 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쉽다.

이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역사 속에서 변해 온 감응과 척도 개념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관의 현재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를 인식하는 거의 대부분의 척도가 서구적으로 바뀐 오늘날 감응관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지나온 역사를 통해 반성해 보려는 것이다.

1) 나는 이왕의 논문인 (김희정, 「중국 고대 감응관의 형성」, 『동양철학』 26집, 2006)에서 감응관의 주요 특징을 서술했다. 본 연구는 앞의 논문을 기반으로 하되, 거기에서 다루지 않은 중국 고대의 율령과 성리학을 근거로 했던 조선 후기의 척도관념이 감응관과 함께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살펴본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세계관을 '감응과 척도의 관계사'라는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 파악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론(試論)이다.

II. 감응과 율려(律呂): 고대 중국의 음악적 세계질서

고대 중국에서 감응과 관련된 척도 관념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음악이다. 이는 유교를 예악(禮樂) 문화이라 한 데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예문화 혹은 예치(禮治)시스템이란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예를 작동하게 하는 주요 동력인 악(樂)을 간과하곤 한다. 유교가 수천년 동안 동아시아인들의 삶의 질서이자 이념으로 작동한 것이 이 지역 문화의 고유한 성격일 수 있지만, 유교가 지향하는 예악이 인간에 내재된 어떤 보편적 성향에 뿌리박은 원천적 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禮)는 제사와 같은 종교적 의례에서부터 정치 제도에 이르기까지 인간 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유교의 총체이다. 예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누는 다름(異)의 원리를 통해 사회 질서를 창출한다. 그렇지만 예가 강화될수록 사회 제도를 지나치게 경직시켜 결국 공동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유가는 이를 방지하는,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 악(樂)임을 발견했다. 악은 음악, 시가(詩歌), 춤은 물론 회화, 조각, 건축 등 조형예술까지 포괄하는 고대 중국 예술의 총화였다. 이 중에서 음악이 가장 근본적인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악기(樂記)』는 이러한 예와 악 그리고 감응의 힘에 대해 이렇게 진술한다.

이 때문에 선왕은 백성을 감응시키는 것을 신중하게 했다. 그래서 예로써 백성의 뜻을 이끌고, 음악으로써 백성의 소리를 조화롭게 하며, 정령(政令)으로써 백성의 행실을 일치시키고, 형벌로써 백성의 간악함을 막았다. 이처럼 예, 음악, 형벌, 정령 이것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이니,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길을 드러내는 것이다.²⁾

2) 『禮記』, 『樂記』, “是故先王慎所以感之者, 故禮以道其志, 樂以和其聲, 政以一其行, 刑以防其姦, 禮樂刑政, 其極一也, 所以同民心而出治道也.”

고대 유가가 음악을 우주적 감응의 무한한 힘 그 자체로 파악했다는 사실은 『악기(樂記)』 외에도 『순자(荀子)』, 『여씨춘추(呂氏春秋)』, 『사기(史記)』 등 많은 문헌에 나타나 있다. 특히, 일정하게 정해진 음률은 음악은 물론 세계의 척도가 되었다. 우주의 척도로서 중심음에 근거해 나머지 모든 음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은 우주의 질서를 파악하고 그에 감응하는 인간의 질서를 세우는 첩경이었다.³⁾ 중국 최초의 정사(正史)인 사마천의 『사기』는 왕의 통치 행위의 근간이 바로 이 음악의 척도인 여섯 음률(六律)임을 웅변적으로 드러낸다.

왕은 사물의 이치를 정하고 법도를 세웠으며, 사물의 도량과 궤칙을 측량할 때에는 모두 6률로 했으니, 6률은 만사의 근본이다.⁴⁾

이 율(律)은 『國語』에 초기 모습이 보인다. 그것은 표준음을 알려주는 척도였다. 율은 세계를 계측할 수 있는 양적인 척도의 중심에 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음악의 근간이 되는 음률의 질서를 말한다. 이를 통해 다른 모든 도량형의 척도를 산출해 낸다. 그리하여 여기서 나온 일정한 척도들을 통해 세상 만사에 질서를 부여하고 제도화 한다. 율은 모두 여섯 가지이다. 즉, 육률은 황종(黃鍾), 태주(太簇), 고선(姑洗), 유빈(蕤賓), 이칙(夷則), 무역(無射)이다. 이 가운데 중심음이 황종이다. 그리고 여섯 율 사이에 육간(六間)을 두었다. 육간은 대려(大呂), 협종(夾鍾), 중려(仲呂), 임종(林鍾), 남려(南呂), 응종(應鍾)이다.⁵⁾ 육간은 원래 고정

3) 1977년 중국 후베이성 수이조우에서 발견된 '증후율편종(曾侯乙編鐘)'은 유교문명에서 음악의 위상을 고고학적 유물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다.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던 때인 기원전 433년경에 제작된 청동 편종은 제후의 무덤에서 발굴된 수많은 유물 중 가장 크면서도 정교하다. 그것은 음악으로 세상을 통치하려는 고대 중국인의 이상을 느끼게 한다. (Jenny F. So. ed. *Music in the Age of Confucius*. Freer Gallery of Art and Arthur M. Sackler Gallery. 2000. 13-33쪽 참조.)

4) 『史記』, 「律書」, “王者制事立法, 物度軌則, 壹稟於六律, 六律爲萬事根本焉.”

5) 『國語』, 「周語下」, “律所以立均出度也. 古之神瞽考中聲而量之以制, 度律均鍾.”

된 음의 위치를 지니지 않은 율들 사이에 퍼져있는 음이었지만, 점차 고정된 음가를 지니게 되었다. 『국어』에서는 육률과 육간을 모두 통칭하는 개념이 없었고, 대체로 『한서(漢書)』 이후의 문헌에서 육간을 대신해 사용한 육려(六呂)를 포함하여 12율로 지칭되었다. 이것은 양(陽)에 해당하는 율이 음(陰)에 해당하는 여(呂)음들도 포괄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남성적인 양(陽)의 기준이 음(陰)의 척도조차 상위에서 포섭해가는 세계관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율 사이에 퍼져있는 음들의 집합인 간(間)이 여(呂)로 지칭되고, 점차 고정된 음가를 지니게 되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근원적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원래 율은 고정된 척도로서 불변하는 법칙의 위상을 지니지만, 간(間)이나 여(呂)는 척도들 사이에 있는 모든 음들을 때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기에 자유로움과 함께 혼돈을 동반한다. 따라서 율려는 질서로서의 코스모스와 그 사이의 카오스가 어우러져 음악을 창조적으로 형성해 나가게 한다. 그렇지만 율의 질서가 강조되면서 여의 혼돈성이 제거되어 갔고, 결국 그 모두가 코스모스적인 척도로 기능하게 된 것이 12율이라고 볼 수 있다. 율은 근원적으로 홀수이자 양의 세계이고, 그것이 짝수이자 음인 여를 하위 체계로 포섭한 것은 중국이 유교의 남성중심적 세계질서를 확고하게 만들어 간 것과 일치한다. 음악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고, 음(音)을 지나치게 척도화하면서 음악에 대한 창조적인 발상과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음악을 문명

百官軌儀，紀之以三，平之以六，成於十二，天之道也。夫六，中之色也，故名之曰黃鍾，所以宣養六氣，九德也。由是第之，二曰太簇，所以金奏贊陽出滯也。三曰姑洗，所以修潔百物，考神納賓也。四曰蕤賓，所以安靖神人，獻酬交酢也。五曰夷則，所以詠歌九則，平民無貳也。六曰無射，所以宣布哲人之令德，示民軌儀也。為之六間，以揚沈伏，而黜散越也。元間大呂，助宣物也。二間夾鍾，出四隙之細也。三間仲呂，宣中氣也。四間林鍾，和展百事，俾莫不任肅純恪也。五間南呂，贊陽秀也。六間應鍾，均利器用，俾應復也。”

의 핵심축으로 생각한 유교국가에서 역설적으로 음악이 쇠퇴해 갔다.

음률과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해야할 것은 다양한 척도 개념이다. 그것은 周나라 때부터 중시되어 전국시대부터 한대에 이르는 사이에 척도 개념이 광범위하게 등장하고 확대되었다. 그 예로 『서경(書經)』에는 “순임금이 음률(律), 길이(度) 부피(量), 무게(衡)의 단위를 통일하였다”⁶⁾고 해서, 척도의 통일이 성왕(聖王)의 통치 행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수(數)는 이러한 척도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었다. 수는 고대 수 신비주의에 근거해서 우주와 인간의 질서를 해명하는 수술(數術)적 세계관의 관건이 되는 용어다. 이것은 대체로 전국시대 말에서 한대에 이르는 제국 질서의 형성과 함께 발전했다. 다양한 척도에는 모두 일정한 수가 대응해 세계를 수의 질서로 장악해 나갔다. 숫자를 통한 통치 체제의 구축은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국가가 출현해 제국으로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서(漢書)』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진술한다.

무릇 성왕은 첫째, 수를 갖추어서, 둘째, 소리를 조화시키고, 셋째, 길이의 단위를 정하고, 넷째, 부피의 단위를 제정하며, 다섯째는 무게의 단위를 정한다.⁷⁾

수는 일, 십, 백, 천, 만 등 사물의 개수를 세고, 성명(性命)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 『서경』에 이르기를 “먼저 산명(算命)을 세운다고 했다.” 수는 본래 (기준음인) 황종의 수에서 시작된 것이다.⁸⁾

6) 『書經』, 「舜典」, “乃同律度量衡.”

7) 『漢書』, 「律歷志」, “一曰備數, 二曰和聲, 三曰審度, 四曰嘉量, 五曰權衡.”

8) 『漢書』, 「律歷志」, “數者, 一十百千萬也, 所以算數事物, 順性命之理也. 書曰, 先其算命. 本起於黃鐘之數.”

여기에 더해 자연의 질서와 사회 제도의 근간인 법칙(則)과 법률(法) 등의 개념도 함께 확장되고 발전하였다. 율(律)은 이 둘을 아우르는 기준이 되었다. 특히 중국 법제의 핵심인 형법과 행정법의 용어로 율이 강력하게 지속된 것은 이러한 음률의 척도와 사회 제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밀착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역경(易經)』으로 상징되는, 우주의 변화 자체를 최고의 질서로 여기는, 중국적 세계관을 기의 감응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의 운행에는 지속적인 질서와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것은 어떤 규칙과 척도로써 구체적으로 표현된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에서 척도는 감응의 질서 안에서 작동하는 규칙성을 이해하기 위함이지 척도 자체가 완전히 독립적인 실체로 보기는 어렵다. 즉, 척도로 자연 자체를 완전히 환원(reductionism)해 이해하지는 않았다.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기계론적 세계관과 대조되는 유기체적 세계관 안에서 기능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마치 음악의 조화와 감응 속에 일정한 리듬과 박자가 있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그것은 중심음을 기준으로 배열된 음률에 의해 강력하게 조율되는 세계질서이다. 중국이 제국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비실체적인 감응의 세계 속에서 척도가 변화(易)의 한 국면으로서 정지된 상태(靜)라고 이론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척도는 딱딱하게 굳은 거의 실체적인 모습을 띠고 존재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즉, 중국이 실체론을 근간으로 하는 서구와 세계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형성과 제도의 구축 속에서 척도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제도의 구축 속에서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뿌리로서의 감응적 세계관이 존재했기에, 실체적 존재론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에 비해 중국은 자기 아닌 것에 대한 배타적 관념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감응과 척도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볼 수 있

다. 감응은 비실체적으로 관계된 세계의 변화와 운동을 보여주고, 척도는 그 변화의 일정성을 드러낸다. 울리는 음악의 조화가 정해진 음률에 기초하는 것처럼 세계도 그러한 분명한 척도에 의해 조율됨을 구체화 한다. 중국은 울려라는 척도를 통해 음악적인 세계 질서를 구축했다. 그 기준음을 따르는 것이 예(禮)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애매하고 혼돈스러운 사이음들인 간(閒) 혹은 여(呂)음이 율(律)로 표준화되어가는 모습에서 척도의 이중성을 보게 된다. 척도는 인간사에 필수적이다. 다만 그것이 근거하는 변화와 혼돈 그리고 자유의 가능성이 사라지면 인간은 바로 그 척도에 얽매이게 됨을 역사가 보여준다. 우리는 그 질서로서의 척도(律)와 그 사이의 여를 다시 자유롭게 함으로써 문화 속에 질서와 창조적 혼돈을 동시에 어떻게 불어 넣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울리는 그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Ⅲ. 성리학의 그 너머: 조선 후기의 감응과 척도

감응관은 위진시대에서 수당시대를 거치면서도 지속되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를 중국화하는데 감응관이 중요한 한 축으로 작동했다.⁹⁾ 송대 이후 감응관은 성리학의 세계관 안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지닌 채 그대로 지속되었다. 성리학의 성립 이후 동아시아가 이 세계관을 근거로 재편되어 간 것을 생각하면, 중국은 물론 조선 후기까지도 성리학에 배어있는 감응관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주희와 여조검이 편집한 성리학의 고전인 『근사록(近思錄)』

9) 위진, 수당 시대의 감응관의 전개에 관한 연구는 이왕의 줄고 참조. (Kim, Hee-Jeong, "Interpretation of Indian Buddhism through the Concept of Cosmic Resonance: The Development of the Buddhist Idea of Cosmic Resonance in China and Korea", 『동북아 문화연구』 16집, 2008.)

에 나타난 감응관을 보자.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다. 무릇 움직임이 있는 것은 모두 자극이다. 자극하면 반응이 있다. 반응한 것이 다시 자극이 되고, 자극한 것이 다시 반응이 되니, 그래서 끝이 없다.¹⁰⁾

그런데 이기론(理氣論)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에서 감응은 어떤 위상을 지니는 것일까? 이를 위해 프랑소와 줄리앙이 이해한 감응관이 도움이 된다. “감응관계는 존재의 발생에 결정적이며 윤리적으로도 근본적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감응을 통해서 매번 일치가 복원되기 때문이다. 존재는 이 일치를 통해 일관성과 통일성을 되찾는다. 따라서 우주론과 윤리는 분리될 수 없으니, 감응관계는 존재문제를 가능성과 목적성의 차원으로 부각시킨다.”¹¹⁾ 본래 고대의 감응은 이렇게 존재론과 윤리가 통합되어 있었다. 이런 면은 특히 한대(漢代) 국가유교의 정초자인 동중서의 천인감응사상에서 두드러졌다. 그렇지만 성리학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기(氣)를 중심으로 감응을 말하면 근원적으로 도가적인 자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맹자의 성성론(性善論)을 근거로 인간 내면의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그 性이 인간 윤리의 초월적 이념이자 우주적 이법인 이(理)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자연 세계 모두에 강한 윤리적 함의를 지닌 영원의 척도를 심어놓았다. 그 이전 시대에 사물의 조리(條理)에 불과했던 이(理)에 새로운 형태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성리학에서 기의 감응에 초월화된 윤리적 의미를 부여하는 척도가 바로 이(理)이다. 인간이 도달해야 할 이상적 삶의 형태는

10) 朱熹, 呂祖謙 編, 『近思錄』, 「道體」, “有感必有應, 凡有動皆爲感, 感則必有應, 所應復爲感, 所感復有應.”

11) 프랑소와 줄리앙, 『운행과 창조』, 유병태 역, 케이시카데미, 2003, 57쪽.

이미 자연에 존재한다. 주자학이 이학(理學)인 이유는 자연에 당위로서의 초월성 혹은 초월적 이념이자 척도인 이(理)가 이미 선형적으로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의 감응 속에 존재하는 패턴이나 척도만으로는 당시 중국을 휩쓴 불교의 형이상학에 대적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원래 이(理)의 초월성은 중국적 세계관에는 없는 것이다. 불교 화엄종의 사법계관(四法界觀) 중의 이(理) 개념을 유가적인 윤리로 바꾸어 사용했지만, 그 안에는 내밀하게 인도적인 초월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¹²⁾ 기의 감응을 제어할 강력한 윤리적 장치를 이(理)라는 초월적 척도로 제시함으로써 실추된 유교를 재건하고자 했다. 동아시아에서 성리학이 성공함으로써 이(理)라는 척도는 감응하는 기의 우주를 유가의 인륜적 세계로 바라볼 수 있게 했지만, 여전히 그것은 감응적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에 서구의 우주론이 전래되고, 정치적으로 서세동점(西勢東漸)이 가속화하면서 결국 감응관에 균열이 일어나 붕괴되었다. 그 단적인 예가 조선 후기이다.

1. 홍대용과 최한기의 기학(氣學)

이(理)라는 영원의 척도가 지배한 조선 후기에 새로운 사조가 발아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理)를 축소하고 제거해 나가는 기학(氣學)이었다. 이는 성리학자들 중 북학파나 경화사족(京華士族)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 중에서 홍대용이 감응과 척도의 관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그 변화의 단초를 알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늘은 그것이 높고 멀다는 것뿐이고, 내가 알고 있

12) 성리학의 이(理)에 관해서는 줄고 (김희정, 「한국유교의 근본주의」, 『한국종교연구』 10집, 2008, 10쪽) 참조.

는 땅은 그것이 두텁고 넓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는 마치 내가 아는 아버지는 남자라는 것뿐이고,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는 여자라는 것뿐이라고 말한 것과 어찌 다를 것인가? 그런 고로 천지의 실제 모습을 알고자 할 때는 생각으로만 탐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로만 찾는 것도 불가능하다. 오직 기기(器機)를 만들어서 측정하며, 수를 계산하여 추론해야 한다.¹³⁾

홍대용은 천(天)을 이(理)로 이해하는 성리학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하늘을 물리현상 자체로 대할 것을 주문한다. 그래서 천지 안의 사물을 도덕적인 잣대로 이해하는 성리학적 한계를 넘어서 수량적 측정을 통해 자연을 물리적 대상으로 보아야 함을 역설한다. 여기에 계량화된 척도의 관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그 측정 도구와 기계를 중요시하고, 측정을 수로 표현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강조한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 후기 최고의 기학자인 최한기를 떠올려야 한다. 그는 감응을 그리 좋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감응 개념에는 척도가 빠져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추측(推測)에 능한 자는 자연히 감응하지만, 감응에만 일삼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감응은 헤아림이 우연히 맞는 것이며, 빈 신령함은 헤아림의 빛이다”¹⁴⁾고 했다. 그는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 모두 근원적으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감응은 세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신 그는 추측(推測)을 강조한다. 추측은 우리말로 ‘미루어 헤아림, 옮기며 재다, 이동하며 측정하다’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推는 ‘이동하다. 옮기다. 추천하다. 나아가다’이고, 測은 度(길이), 量(용적), 權(무게), 計(계산)과 같은 종류의 단어가족이

13) 洪大容, 『湛軒書』, 「測量說」, “若曰天吾知其高且遠而已, 地吾知其厚且博而已, 則是何異於曰父吾知其爲男子而已, 母吾知其爲女子而已者哉, 故欲識天地之體狀, 不可意究, 不可以理索, 唯製器以窺之, 籌數以推之.”

14) 崔漢綺, 『氣測體義』, 「感應虛靈」, “感應者, 測之偶合, 虛靈者, 測之光耀也.”

다. 이는 고대에 사물의 수량을 계산할 때, 표준에 의거해 사물을 측정하는 동사로 쓰였다. 특히 측(測)은 높낮이를 측정하는 동사로서, 예를 들어 하늘과 땅의 높이나 물의 깊이 등 헤아리기 힘든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감응하는 세계 안에서는 항상 세계의 신성이 내밀하게 작동한다. 그것은 계량적인 측정을 넘어서 있다. 『주역』 「계사전」에 “음양의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일러 신(神)이라고 한다(陰陽不測之謂神)”고 해서 측정 불가능한 세계의 신비한 성격에 대해 표현한 것이 그 예이다. 최한기는 이러한 세계인식의 한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세계를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추측에 습관이 들면 자연히 심령이 열린다. 미룸(推)에는 감추어진 것과 드러난 것(隱顯)이 있고 헤아림(測)에는 동정(動靜)이 있다. 감추어진 것을 미루어 움직임을 헤아림에 있어서 혹은 근거 없이 감응해 발현한 것이 사물에 적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맞는 것이지 사물마다 다 그러한 것이 아니다. 비교하면 밤에 꾸는 꿈이 가끔 맞는 경우도 없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른바 감응이란 바로 낮에 꾸는 꿈인 것이다... 무릇 감응과 빈 영묘함(虛靈)이란 덕을 이룬 사람에게 있어서는 힘쓰지 않아도 자연히 맞는 것이 있지만, 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매번 경박하고 성급한 기상과 망령된 생각을 하는 것을 감응과 빈 영묘함이라 하니, 이것은 옳지 않다.¹⁵⁾

나아가 그는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숫자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감응하는 기를 숫자화된 계량적 세계로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구과학에서 발전한, 세계에 대한 양적 인식을 받아들인다.

15) 崔漢綺, 『氣測體義』, 「感應虛靈」, “推測成習, 自有分開, 推有隱顯, 測有動靜, 及其推隱而測動. 或有無緣感發, 適應事物, 乃是偶合也. 非事物物皆然也. 譬如夜夢, 不無億中, 所謂感應, 便一晝夢也... 夫感應虛靈, 在於成德之人, 自然不勉而中, 在於未成德之人, 每以浮躁之氣, 妄誕之想, 謂之感應虛靈, 則便不是也.”

기의 모이고 흩어짐(聚散)은 수(數)가 아니면 그 상하를 소급해 알 수 없고, 이치(理)의 가감(加減)도 수가 아니면 승제(乘除)까지 미루어 나갈 수 없다. 더 나아가 여러 사물을 비교하고 헤아리는 데 있어서도 모두 수에서 시작하게 된다. 또 그것을 정밀하게 증험하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 만약 잘못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속이기 어렵고, 거칠게 이루어진 것이 다 드러난다.¹⁶⁾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도함인가? 당시 정통 관학이었던 理를 위주로 하는 주자학적 세계질서를 근원적으로 해체하는 것이다. 그는 영원의 도덕적 이념을 추구하는 궁리(窮理)에서 벗어나 경험적인 추측의 세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궁리를 힘쓰는 사람은 모든 이치가 모두 내 마음에 갖추어졌다고 여겨 나의 마음의 궁구가 미진한 것만을 걱정하나, 추측을 힘쓰는 사람은 지난 날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였던 기(氣)를 미루어 가부를 헤아린 다음에, 옳으면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미룬 것을 변통하여 헤아리는 것이 올바른지를 판단한다. 대개 궁리를 한다는 사람은 천지 만물의 이치를 하나의 이치로 알아 나의 마음을 궁구하여 극진한 데 이르면 모든 이치를 갖추 수 있다고 여기나, 추측하는 사람은 인간 본성(性)과 자연(天)이 나누어져 있고, 사물과 내가 다름이 있으나, 이것을 미루어 저것을 증험하여 헤아리는 것은 같다고 한다.¹⁷⁾

우리는 여기서 주자학적 세계질서의 중심축인 영원의 척도로서의 이(理)를 거부하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추측하는 과학적 사

16) 崔漢綺, 『氣測體義』, 「數理」, “氣之積分, 非數. 無以泝流上下, 理之加減, 非數, 無以推移乘除. 至於比例諸事料度諸物, 皆從數起, 而查驗之精密, 尤有定法, 如有過差, 毫釐難欺, 竊率畢露.”

17) 崔漢綺, 『氣測體義』, 「窮理不如推測」, “務窮理者, 以爲萬理皆具於我心, 猶患我究之未盡. 務推測者, 推其前日見聞臭味觸之氣, 而測其可否, 於此可則止之, 否則變通, 其推期測其可. 蓋窮理者, 以天地萬物之理爲一理. 故究我心窮至, 則可賅諸理. 推測者, 性與天有分, 物與我有別, 推此驗彼, 而測之者一也.”

유를 전개시키는 최한기의 사유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이념적이고 종교적인 세계에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세계로 이행하는 출발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 이념의 척도인 이(理)의 붕괴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그는 척도의 관념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의 차원으로 낮추면서도 여전히 우주 전체가 기(氣)의 운화(運化)의 장임을 주장했다. 이 운화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세계를 드러낸 개념이 아니다. 그는 감응관이 지닌 신비주의적 요소를 탈색하고, 경험과 계측에 근거한 기계론적 인식을 긍정하면서도, 인간과 만물들 사이에 막힘이 없이 소통하는 기의 유기체적인 전일성을 보여준다. 그는 궁극적으로 운화라는 유기체적인 살아 있는 우주 안에 계량적이고 기계론적 세계를 융합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다만, 기계론과 유기체론이 불안정하게 동거한 채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 최한기는 감응의 신비주의적인 측면이 최소화된 기(氣)의 운동 속에서 인간이 자유로이 양적 척도를 통해 기를 측정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런 면에서 그를 고대인의 피를 물려받은 근대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김일부의 정역(正易)사상과 올려

김일부의 정역사상은 최제우의 동학사상과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이념을 공유한다. 후천은 기존의 선천시대에서 통용되던 질서와는 다른 척도에 의한 세상이 열림을 의미한다. 그는 선천시대를 대변하는 『주역』의 세계질서가 자신의 『정역』에 의해 포섭되어 대체될 것을 예언했다. 그렇다면 그의 새로운 척도는 기

18) 崔漢綺, 『氣測體義』, 「神氣感感」, 「神氣幽通也」 이 점에 관해서는 최진덕, 「해강 기학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해강 최한기』, 여강출판사, 2000. 142-145 쪽 참조.

의 감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최제우의 사상을 볼 필요가 있다. 최제우는 사람 안에 신비한 영성이 있고, 밖으로는 그 신비한 영성과 만물이 동일한 기운을 지닌 서로 소통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는 이를 기화(氣化)라고 했다.¹⁹⁾ 기의 감응 곧 기화는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유지되는 우주론적 근거이다. 이러한 기(氣)의 우주라는 세계인식의 연속성 속에서 선천과 후천이 나뉘는 분기점은 모든 사람을 하늘의 위치로 격상함에 있었다.²⁰⁾ 이 새롭게 인식된 우주 안에서 사람, 만물, 하느님은 세계의 공동 창조자요 책임자이다. 기화는 유지하되, 기의 청탁(淸濁)과 같은 관념으로 사회를 수직적으로 위계화하는 성리학적 우주론을 변혁하려 한 것이다.

김일부는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선천시대의 『주역』을 후천시대에 맞는 『정역』으로 바꾸는 일을 했다. 『정역』에는 우주의 주기 변화에 관한 논의가 나온다. 상수(象數)에 근거한 문구들이 마치 암호처럼 서술되어 있는 『정역』의 사상을 해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대의(大義)에 접근할 수는 있다. 『정역』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사유는 “기위친정(己位親政)”²¹⁾이다. 기위(己位)는 10간(干) 중의 10수인 기(己)로서 하느님의 자리(位)이다. 즉, 하느님이 직접 세상을 통치하는 때가 후천이라는 것이다.²²⁾ 하느님이 모든 인민에게 직접 임재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최제우가 말한 사람이 하느님을 모신 상태인 시천주(侍天主)를 김일부는 ‘기위친정’과 ‘상제조림(上帝照

19) 崔濟愚, 『東經大全』, 「論學文」, “內有神靈, 外有氣化.”

20)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은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멧밥의 위치를 바꾸는 실천인 향아설위(向我設位)를 통해 선천시대의 문명에서 작동해 왔던 종교적 틀과 그 척도를 근원적으로 변혁하려 했다. 이에 관해서는 김지하, 『밥』, 분도출판사, 1984. 85-86쪽 참조.

21) 金一夫, 『正易』, 「化翁親視監化事」, “己位親政.”

22) 金一夫, 『正易』, 「十一吟」, “上帝照臨.” 이 점에 관해서는 이정호, 『정역과 일부』,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5. 292-297쪽 참조.

臨)'으로 표현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때는 어떠한 모습일까? 김일부도 기화(氣化)적 세계관을 유지하면서 선천시대의 양(陽) 중심의 율려가 후천시대에는 음(陰)을 존중하는 시대로 변한다고 했다. 그는 “음을 누르고 양을 높임은 선천 심법(心法)의 학문이요, 양을 고르고 음을 조율함은 후천 성리(性理)의 길이다”²³⁾고 했다. 그리고 글자의 순서 자체를 율려(律呂)가 아닌 여율(呂律)²⁴⁾로 바꾸기도 했다.

『주역』과 율려는 선천시대 유교의 남성중심적이며 억압적이고 위계적인 문명을 상징한다. 김일부는 『정역』과 여율로써 그것을 뒤집고, 후천세계의 질서를 제시한다. 선천시대에 억압받은 여성과 인민을 대표하는 상징인 여(呂)음은 그림자로 묘사되었는데²⁵⁾, 바로 이 그림자(影)가 우주를 움직인다는 것이다.²⁶⁾ 그림자는 세계종교사적으로도 상당히 보편적인 상징이다.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그림자를 미정형의 근원 혹은 우주창생 이전의 상태로 귀환을 의미한다고 보았다.²⁷⁾ 즉, 그림자는 혼돈인 것이다. 이 혼돈은 생명을 재생시키며, 새로운 우주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여기서 본래 율려의 여가 율 사이의 음, 즉 혼돈의 소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그림자가 여(呂)이며, 혼돈이다. 선천시대에 비천하게 취급받고 고통당한, 어두운 그늘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복음인 것이다. 중국 고대 이래 동아시아 세계의 척도였던 율려가 여율로 바뀐다는 혁명적인 발상은 김일부의 후천개벽사상이 얼마나 근본

23) 金一夫, 『正易』, 「一歲周天律呂度數」, “抑陰尊陽先天心法之學, 調陽律陰後天性理之道.”

24) 金一夫, 『正易』, 「十一歸體詩」, “呂律戊丁乙癸辛.”

25) 金一夫, 『正易』, 「金火五類」, “分面影而呂.”

26) 金一夫, 『正易』, 「先後天周回度數」, “影動天心月.” 이 그림자(影)에 관한 논의는 김지하, 『율려란 무엇인가』, 한문화, 1999, 64쪽 참조.

27) 미르치아 엘리아데, 『상징, 신성, 예술』, 박규태 역, 서광사, 1991, 38-39쪽.

적인 차원에서 세상의 변혁을 꿈꾸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조선 후기 기학과 후천개벽 사상의 전개 과정 속에서 감응과 척도의 관념이 변화한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세계관을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근대 서구의 과학적 세계관을 기우주론 안에 포섭하려 노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교의 억압적인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사상운동이 새로운 척도관의 발흥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가능성을 사장한 채 서구적인 세계관으로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고, 그 장점과 폐해를 모두 경험하고 있다.

IV. 현대 세계에서 감응과 척도의 의미: 종교, 법, 과학의 사이에서

현대는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란 사회 구성원을 묶는 종교의 상징체계나 그것이 지닌 궁극적 가치가 사라져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동아시아적 방식으로 표현하면, 세계와 인간 전체를 묶는 감응의 힘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막스 베버는 이를 세계가 탈주술화한 것이라고 했다. 감응하는 세계엔 신성이 내밀하게 살아있고, 목적성과 가치가 자연스럽게 출현한다. 그것은 우주 자체가 모두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신성한 생명력이 없는, 물질만 남은 세계에서 인생의 궁극적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종교는 신이나 우주의 질서를 통해 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힘이다. 그 질서의 핵심이 ‘우주적 척도로서의 법(Law)’이다. 이 법은 살아있는 신이나 우주의 힘에 의해 유지된다. 그래서 법은 차가운 물질의 법칙이 아닌 목적성을 지니고 생기하는 자연 속에서 발현된다. 고대 중국에서 감응하는 우주의 척도는 올려였다. 감응을 생명으로 하는 음악의 척도 개념인 율(律)이 핵심적인 법의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사회 전체의 신성한 우주적 의미와 제도를 형성한다. 고대 문명에서 사회와 우주가 동일한 법의 지배로 표상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법은 신의 계시 혹은 우주의 질서 자체다. 유대교의 토라(Torah), 이슬람의 샤리아(Shariah), 힌두교와 불교의 다르마(Dharma), 유교의 예(禮)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세계를 하나의 통일된 질서로 묶는 신성한 율법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신의 명령이나 우주의 법이기에 강제적이며 폭력적인 성격도 지닌다.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기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단, 형벌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 제도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다양한 종교 의례와 교육을 통해 세계의 구성원리이자 이념인 법을 집단 구성원에게 내면화하고 재생산한다. 내적인 훈육과 외적인 사회화 과정은 기존의 종교적 세계질서를 지속하는 핵심 기제이다. 이 모두가 법이라는 척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화의 길을 걷는다.

이러한 인간 사회의 최고의 척도인 법은 우주를 구성하는 인간의 종교적 행위의 결과 자체일 수 있고, 그 전체 속에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나누는 경계나 그 한계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 법은 유동(流動)하는 인간 사회의 여러 영역을 제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딱딱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인간은 빠와 함께 피와 살도 지닌 존재이기에, 이 영역까지 경직되기 시작하면 죽음 곧 사회의 붕괴를 초래한다. 질서를 추구하는 인간과 경직하기 쉬운 법은 인간 존재의 한계와 그로 인한 사회 정치 질서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인간의 몸이 그렇듯이 법도 이질적이고 혼돈스러운 여러 요인들과 끊임없이 조율되어야 한다. 표준음인 율(律)이 그 사이에 퍼져있는 애매한 음들의 집합인 여(呂)와 조화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래서 중용(中庸), 즉 역동적인 평형(dynamic equilibrium)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

코 쉽지 않다. 만약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실현된다면 그곳이야말로 유토피아(utopia)일 것이다. 보통 이상적이고 완전한 세계를 뜻하는 유토피아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ou) 장소(topos)이다. 지상에는 없는 세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현실화하려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세계의 종교문화는 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의적 측면에도 상이한 척도를 지니고 있다. 서구의 배타적이고 실체적인 종교관을 통해 보면 각 종교는 근원적으로 융합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동아시아는 다르다. 비실체적인 감응관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종교전통을 감응관에 근거하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감응관념은 중국의 역사 속에서 유(儒)·불(佛)·도(道) 삼교동원론(三敎同源論)이나 삼교합일론(三敎合一論)의 형성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로 작용했다. 각 종교의 경계를 허무는 인식을 형성한 것이다. 삼교합일론은 위진남북조시대에 본격적으로 불교가 유입되면서 삼교합일에 대한 생각이 서서히 형성되어 명대에 이르러 화려하게 꽃피웠다. 관계적이고 비실체적인 감응관은 실체화되고 경계가 분명한 고립적이고 배타적인 종교관을 형성하지 않은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서구나 근동에서 유일신교 즉, 유대교, 그리스도교 및 이슬람교가 배타적이고 실체화된 종교관을 지니고 있었기에 자기(我)와 타자(他)의 영역과 경계가 분명했고, 이 때문에 많은 충돌이 일어났다. 물론 동아시아에 종교간의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유일신교들에 비해서 그 배타성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 중심에 세계를 비실체화하고 관계적으로 어울리게 하는 감응관이 있다. 이 점에서 오늘날 이러한 감응적 세계관을 통해 세계 종교 전체를 하나의 관계된 총체로 바라볼 수 있다. 모든 종교는 각기 다르지만 존재론적으로 통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인식은 종교에 대한 인식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척도를 중시하는 또 하나의 핵심적 영역은 현대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과학이다. 근대과학은 측정량²⁸⁾이라는 척도를 통해서 자연을 설명한다. 측정량은 세계의 질적 측면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 수많은 사랑의 형태를 양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듯 근대과학은 측정량이라는 특정한 학문방법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는 사유방식이다. 이렇게 본래 제한된 척도를 지닌 근대 자연과학적 인식을 지나치게 확대시키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 근대이후 세계의 수많은 문제 상황은 이러한 과도하게 부풀려진 과학주의에 기인한다. 인도의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의 환영(illusion)을 뜻하는 maya가 원래 계량과 측정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인은 계량의 허구성을 보았던 것이다.²⁹⁾ 이러한 극단적인 태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는 근대과학이 서 있는 지점을 좀 더 거리를 두고 살펴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서구전통의 뿌리인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된 측정의 의미를 설명한 물리학자 데이비드 보움의 말을 경청할 만하다.

‘측정’이란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한계’ 혹은 ‘경계’였던 것을 여기서 상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각각의 일들은 그 적절한 측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예로써 그리스 연극에서 매우 강력히 내세웠듯이, 인간의 행동이 고유한 한계 혹은 척도를 넘을 때 그 결과는 비극이 될 것이다. 척도는 실제로 삶을 이해하는 본질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지혜는 중용, 근신과 동일한 의미였다. 또한 이들의 공통 어원은 척도(measure)로부터 유래하였다. 따라서 지혜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올바른 척도로 재는 사람임을 시사한다.³⁰⁾

28) 측정량과 측정에 관해서는 이상하. 『과학철학』. 철학과현실사. 2004. 292-293쪽과 Karel Berka. *Measurement*. Dordrecht: Reidel Publishing Company. 1983. 14-27쪽 참조.

29) 데이비드 보움. 『현대물리학의 철학적 테두리』. 전일동 역. 민음사. 1991. 49-50쪽 참조.

30) 데이비드 보움. 같은 책. 1991. 172쪽.

과학은 영원의 척도가 아니라 인간 이성의 한 측면일 뿐이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유한자(有限者)가 지닌 제한된 능력일 뿐이다. 척도를 사용해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척도 자체와 그것을 사용하는 자신의 한계를 동시에 인지해야 한다. 척도라는 말 자체가 중용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이와 유사하게 고대 중국인은 세계와 조화롭게 감응하려면 때에 맞추어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서의 시중(時中)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계가 음악처럼 끊임없이 율동하기에 그 변화의 패턴과 척도에 맞추는 것(中)은 항상 때(時)가 중요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한계에 관한 태도와 중용, 시간에 관한 인식은 감응과 척도와 함께 다시 광범위하게 재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종교와 법 및 과학의 관계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³¹⁾

V. 결론

우리는 현대 세계에 감응의 힘을 불러올 수 있을까? 그것은 가능하거나 한 것일까? 아니면 감응을 살리려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일이 아닐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척도를 창조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고대 중국에 형성된 감응관념은 동아시아 세계관을 이해하는 관문이다. 우주와 인간 전체가 같은 기(氣)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관계를 형성해 가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감응이다. 근대 이전까지 감응관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고, 그 속에서 척도의 관념이 변해왔다. 우주의 기준음의 체계인 율려가

31) 이 문제는 너무 광범위한 영역이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그치려 한다.

제정된 이래 도량형과 법령을 비롯해 수많은 인간사가 그 척도에 조율되었다. 그 자체가 감응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송대 성리학이 성립한 이후 동아시아에는 기(氣)의 감응에 이(理)라는 강렬한 형태의 초월화한 윤리 관념이 척도로 등장하였다. 이 영원의 척도는 감응하는 기의 생명계를 유가적인 강상윤리의 질서로 구획해 나갔다. 조선후기에 성리학적 질서가 흔들리고 서구의 우주론이 유입되면서 다시 기학(氣學)이 부상했다. 그렇지만 그 기에는 신비한 감응 보다는 경험적 계측성이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홍대용에서 최한기의 길이 그것이다. 한편 김일부의 정역과 같은 후천개벽사상은 기화(氣化)하는 관계적 세계를 유지하되, 정역과 여율(呂律)과 같은 새로운 척도로써 신과 인간의 관계, 남성과 여성의 관계 등 선천시대 문명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려 했다. 끝으로 이러한 감응하는 세계 속의 다양한 척도의 변화가 현대 세계의 종교와 법 및 과학의 관계를 다시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자연과 신, 인간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세계는 요원한 것인가? 나는 동아시아 세계관의 중심인 감응과 척도의 관계사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새로운 자연관을 중심으로 과학과 종교, 사회제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인간의 소외를 줄이는 세계관은 가능한 것일까? 이 연구는 잃어버린 통합적 세계에 대한 꿈을 다시 꾸기 위한 여정의 일환이다.

참고문헌

- 김지하. 1984. 『밥』. 왜관: 분도출판사.
- . 1999. 『올려란 무엇인가』. 서울: 한문화.
- 김희정. 2008. “한국유교의 근본주의.” 『한국종교연구』10집.
- . 2006. “중국 고대 감응관의 형성.” 『동양철학』26집.
- 데이비드 보임. 1991. 『현대물리학의 철학적 테두리』. 전일동 역. 서울: 민음사.
- 미르치아 엘리아데. 1991. 『상징. 신성. 예술』. 박규태 역. 서울: 서광사.
- 이성호 주해. 1988. 『正易』. 서울: 아세아문화사.
- . 1985. 『정역과 일부』. 서울: 아세아문화사.
- 이상하. 2004. 『과학철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 최진덕. 2000. “해강 기학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해강 최한기』. 서울: 여강출판사.
- 프랑소와 줄리앙. 2003. 『운행과 창조』. 유병태 역. 서울: 케이시아카데미.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9. 『천도교창건사』. 아세아문화사.
- Jenny F. So, ed. 2000. *Music in the Age of Confucius*. Freer Gallery of Art and Arthur M. Sackler Gallery.
- Kim, Hee-Jeong. 2008. “Interpretation of Indian Buddhism through the Concept of Cosmic Resonance: The Development of the Buddhist Idea of Cosmic Resonance in China and Korea.” 『동북아 문화연구』16집.
- Karel Berka. 1983. *Measurement*. Dordrecht: Reidel Publishing Company.
- 『國語』. 1983.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史記』. 1983. 北京: 中華書局.
- 『書經』. 1980. 『十三經注疏』. 北京: 中華書局.
- 『禮記』. 1980. 『十三經注疏』. 北京: 中華書局.
- 『漢書』. 1983. 北京: 中華書局.
- 朱熹. 呂祖謙 編. 1974. 『近思錄』. 『漢文大系』22. 東京: 富山房.
- 崔漢綺. 1971. 『氣測體義』. 『明南樓叢書』1.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崔濟愚. 1979. 『東經大全』. 서울: 아세아문화사.
- 洪大容. 2000. 『湛軒書』. 『韓國文集叢刊』24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Cosmic Resonance, Measure, and their Modern Meanings

KIM Hee-Jeong

Lecturer, Sogang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attempt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smic resonance and measure in East Asian tradition, and understand their modern meanings. Cosmic resonance (ganying, 感應) is a central concept of ancient Chinese cosmology. This idea of cosmic resonance is related to the idea of pitch standard (lǚlǚ, 律呂). The concept of lǚlǚ is the musical and cosmic measure in the correlative cosmology. Ancient Chinese governments standardized weights and measures by lǚlǚ. The character lǚ(律) itself means law.

After neo-Confucianism was established in Song dynasty, even though li(理), meaning the eternal measure and natural principle, was the most important value of Choson Confucianists, it decreased in importance in late Choson dynasty. Instead, Hong Dae-Yong and Choi Han-Gi interwove Qi thought with the idea of quantified measurement. They attempted to unify Eastern organic world-view and Western scientific thoughts. Kim Il-Boo's thought of "Right Changes" (Jeongyeok) as Korean Millenarianism sought a new truth and measure of the world. They argued that, in a secularized modern world, we need to reinterpret views of religion, law, and science through historical relationships between cosmic resonance and measure.

Key Words : Cosmic Resonance, Measure, Pitch Standard(Lǚlǚ), Qi thought, Right Changes(Jeongyeok), Modern Meaning